

요약

글로벌 경제 전망은 2012년에 다소 개선되었다. 2011년 말의 급격한 경기 침체 이후, 글로벌 경제 활동이 2012년 하반기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유로 지역의 급박한 위기를 모면한 후 첫 1분기에 금융 상태가 상당히 완화되었고 위험 선호도가 반등했다.

또한 아시아의 성장도 2012년 동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전체의 경제 활동은 주로 외부 수요의 감소에 따라 2011년 마지막 분기에 현저하게 침체되었으나, 국내 수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강세를 유지했으며, 이것은 낮은 실업률, 높은 설비 가동률, 그리고 견실한 신용 증가에 의해 증명된다. 2012년의 첫 수개월 동안에 경제 활동의 선행지수가 강화되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증가했고, 신흥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본 유입이 반등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성장률은 2012년에 6 퍼센트로 전망되어 대체적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2013년에는 약 6½퍼센트로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여,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하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로 지역의 부채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지역의 금융 혼란이 계속 확대되어 전세계로 파급될 수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 및 정책 펀더멘털이 비교적 견실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아시아 경제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정책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역과급 효과를 축소하고(제 2 장) 유럽 은행들에 의한 디레버리징의 영향을 개선(제 3 장) 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외국 자본의 역류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국내 수요에 대한 연쇄 효과를 통해서 아시아의 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물가에 대한 충격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에너지 및 식량 보조금으로 인한 예산 위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면에, 이 기금의 중심적 시나리오에 대한 상방위험도 있다. 거시경제 정책이 일반적으로 계속 경기부양적이었기 때문에, 2012년 동안에 글로벌 경제와 금융 상태가 더욱 안정되면 이 지역의 성장이 증가하고 경기과열 압박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안정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의 정도를 조정하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011년 말에 글로벌 경제 회복이 정체되었을 때 거시경제 정책의 정상화를 잠시 중단하는 것은 그 당시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완전히 정당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입안자들이 경기 과열 압박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 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긴축 사이클을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위험의 균형은 국가마다 다르다. 하방위험에 많이 노출된 경제국들과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국들은 더 오랫동안 정상화를 중단할 수

있으나, 경기 부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신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다른 경제국들은 더 빨리 중립적인 정책 기조로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재정 건전화의 속도를 조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재정 적자와 높은 부채 구조를 안고 있는 국가들은 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부 충격 위험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보험의 형태는 계속 국내 성장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무역흑자가 감소하여 마침내 글로벌 수요가 주요 흑자 경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조정은 중국이 투자 주도 성장으로부터 소비 주도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달려있다(제 4 장). 인도는 투자 분위기, 기반시설 및 교육을 개선하고, 무역의 난점을 해소하고, 노동법을 완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인구학적 변천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ASEAN 경제국들은 적절한 중기적 기조 내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를 하는 것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광범위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저소득 및 도서 경제국들은 특별한 문제점에 대처해야 한다(제 5 장). 저소득 국가들은 외국 직접 투자(다른 아시아 경제국의 투자 포함)를 유치하는 것이 아시아의 성장 동력에 완전히 참여하고 이 지역의 균형 조정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태평양 및 기타 도서 경제국들은 글로벌 경제의 역과급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중기적으로 성장 요소를 확대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